

경기불황 장기화… 광주 중기 매출·종사자 감소

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발표

21만405개 전년보다 5143개 늘었지만 비중 0.1%p ↓
매출 1.7%·종사자 수 0.9% 줄어… 전남은 상향 흐름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불어닥친 위기감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지역 중소기업 수는 소폭 늘었지만, 종사하는 인력수와 매출액은 뒷걸음질 쳤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광주의 중소기업 수는 21만405개로 전년(20만5262개)과 비교해 5143개(2.5%) 늘었다.

하지만 비중 면에서는 2022년 2.6%에서 2023년 2.5%로 0.1%p 하락했다.

또 광주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2022년 46만6106명에서 2023년 46만1898명으로 4208명(0.9%)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종사자 수가 줄어든 지역은 서울(6만7142명)과 광주 뿐이다.

매출도 떨어졌다.

2023년 광주 중소기업의 매출은 77조6814억원이었는데 이는 전년(79만364억원)과 견줘 1.7% (1조355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전남 중소기업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랐다. 전남의 중소기업 수는 2023년 30만4251개로 전년(29만4743개) 보다 3.2% (9508개) 늘었다.

전체 매출액은 3301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7조77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도별 매출액은 지난 2020년 2675조원, 2021년 3017원, 2022년 3309조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7.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통신업(12.2%), 전문·과학·기술업(7.4%), 도소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각각 3.2%, 2.6%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2.5% ↑), 도소매업(2.3% ↑)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운수·창고업(4.6% ↓), 제조업(0.5% ↓) 등 7개 업종은 줄었다.

업종별 매출액은 금융·보험업(17.9% ↑), 숙박·음식점업(8.7% ↑)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제조업(1.9% ↓), 도소매업(1.3% ↓) 등 7개 업종은 떨어졌다.

소매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CONOMY

2025년 9월 1일 월요일



‘광주ACE페어’ 문화관광부문 여수광양항만공사 ‘최우수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에서 문화관광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 에이스 페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전문 전시회로 매년 세계 각국의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교류의 장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장의 스카이라인과 빅오해상분수쇼 등 관광 콘텐츠 개발, 국제 크루즈 유치, MICE 거점 운영 등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부응하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황학범 항만공사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여수세계박람회장장을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입주업체 등이 함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항만공사는 박람회장을 관광재과 지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스카이라워, 빅오해상분수쇼, 아르떼뮤지엄 여수, 아쿠아플라넷 여수 등 주요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 글로벌 해양 문화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양경제청-주한 중국상의 간담회 개최…투자방안 협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제청 상황실에서 까오전 주한 중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투자방안을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한 중국상공회의소는 225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단체로 화웨이, BYD, 중국은행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전남분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까오전 회장단 일행은 간담회에 앞서 전남분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중국 회원사 기업인 분유생산업체 에이치에이엠(HAM)과 위생용품 제조업체 킹토플을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산업 입지와 물류인프라 등을 확인하며 광양만권의 산업 잠재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까오전 주한 중국상의 회장은 “광양만권은 항만과 산업단지, 지리적 이점이 집적된 한국의 대표 산업거점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다”며 “중국 기업인들이 광양만권에서 더 많은 사업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은 한국 내 중국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하겠다. 양국 경제 협력의 최일선에 활동하는 중국상공회의소가 광양만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협력을 넓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주RISE 정책네트워크 출범…혁신 구심점

인구감소·성장사다리 구축 등 대응 키포프 회의

광주RISE 사업을 이끌어갈 정책 거버넌스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광주RISE센터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G-RISE 정책네트워크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G-RISE 정책네트워크’라는 공식 명칭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 광주RISE 사업의 로드맵과 단위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정책네트워크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책네트워크의 활동 방향도 구체화됐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을 비롯해 대학 교육-실습-취업-창업-정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 AI·미래차·에너지 등 전략산업 맞춤형 커리큘럼 혁신, AI 2단계 사업과 연계한 산업구조 고도화, 호남권 초광역 협력 및 범부처 과제 확대, 성과지표 개선과 신규 혁신과제 발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광주RISE센터는 이번 정책네트워크 출범을 계기로 수시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워크숍·세미나 등을 운영하며 현장의 이슈와 성과자료를 공유,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초광역 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한 위원들은 “G-RISE 정책네트워크는 지역혁신의 아이디어와 실행 전략을 모으는 협력 플랫폼”이라며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광주가 미래산업 기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농협은 최근 본점 주차장에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농심천심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광주농협, ‘농심천심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1시간 만에 진도산 핫건고추 4000근 완판

광주농협은 최근 본점 주차장에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농심천심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농협, 진도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도산 핫건고추 4000근을 중간 유통 없이 산지가격 (근당 1만1000원)에 판매해 1시간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장터는 도농이 함께하는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저렴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또 1등 11명…당첨금 각 26억2000만원

제118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3, 26, 29,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6억193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607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47명으로 15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44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55만7090명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비츠로배드민턴단, 재능기부 봉사 광주은행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 ‘비츠로 배드민턴단’이 최근 나주시배드민턴협회 및 산하 12개 클럽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의 실전 노하우를 직접 배우며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었고, 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배드민턴의 즐거움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GICON,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팸투어 ‘성료’

CGI센터·실감콘텐츠큐브 등 지역 핵심 거점시설 견학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팸투어는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지역의 핵심 인프라를 체험하며 산업 경쟁력을 확인하고,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수도권 중견기업 ㈜에듀윌을 비롯해 총 19개 콘텐츠 기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투자진흥지구 권역 및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광주 CGI센터,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콘텐츠허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핵심 거점시설을 둘러봤다.

또 미시간벤처캐피탈, 키로스벤처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팸투어’를 개최했다.

자, 한국가치투자, 오라클벤처투자 등 국내외 유수 투자사와의 1대 1 상담이 진행됐다.

역외·임주기업 간 네트워크가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지역 대표 콘텐츠 전시회 ACE Fair를 참관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실제 광주실감콘텐츠큐브와 광주 CGI센터를 방문해 첨단 실감형 제작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으며, 투자사와

의 상담 및 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이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권역을 둘러보며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의 대형 LED 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월을 관람하고 콘텐츠 분야 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GCC사관학교’ 교육장과 커리큘럼을 견학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전KPS,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29년 연속 대통령상

7개팀 참가…금상 3개·은상 3개·동상 1개 수상

한전KPS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전국품질보급조정경진대회)에서 29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전KPS는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현장개선, 안전품질 등 2개 부문에 7개팀이 참가해 모든 팀이 대통령상에 해당하는 금상 3개, 은상 3개, 동상 1개를 수상했다.

경진대회는 전국 산업현장에서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

분업조를 선정해 포상하고, 기업 품질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했다.

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온 한전KPS는 올해 창사 4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전과 혁신의 각오’를 바탕으로 혁신 활동에 매진한 결과 29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현장개선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빛가

람 분업조는 ‘원자력발전 급수 이송공정 개선으로 정비시간 단축’을 통해 정비시간을 40.52% 단축해 △인력운영 효율성 △원가절감 △정비환경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안전품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안전케슬 분업조와 제주올레 분업조는 각각 ‘원자로 냉각재순환 정비공정 위험요인 개선으로 위험지수 감소’, ‘복합화력발전 에너지 변환공정 위험요인 개선으로 위험지수 감소’ 사례를 통해 위험지수를 각각 32.03%, 26.55% 감소시켜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 PDCA(계획-실행-점검-현류) 관점의 개선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